

進化上 個我的 地位

(單子的 個我主義)(五)

韓稚振

以上에 論한 事實에 依하여 吾人은 生命과 肉體를 兩者로 보지 안코 生命 活動에는 生命力和 肉體的인 것이라고 主張한다. 究 南北的 關係를 짓고 있는 一元的 實在이니, 이것이 卽 生命活動이다. 우리는 여기서 生命力的 永生說을 省略하기로 하고 以後機會에 從하여 論及할터이나, 다만 肉體의 死滅에 對하여 一言을 加하고자 한다.

勿論 唯物論者의 物質 不滅說을 利用하여 永生說을 樹立할 수 있스나, 吾人이 眞正이라고 信하는 實在은 物質이 아니고 生命力인 故로 이 生命力에 對한 永生說을 달리 說明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또 今日의 科學的 細胞永生說有하나, 그것도 여기서 略하기로한다. 單只 여기서 論示하려는 것은 個我的 永生說인 것이다. 여기에도 다시 個我的 全精神的 生活을 敍述치 안코는 不能이다. 그런데 우리 各個人이 至今이 地球上에서 맛보고 있는 經驗을 꼭 가티 肉體死後에도 맛볼 수 있을까? 이 質問의 對答은 以上에 論한 筆者의 立地로써 벌써 決定되었스리라 한다. 우리 各個人의 地上經驗은 至今까지 고 있는 肉體로써야만 可能한바 萬一 至今 가지고 있는 肉體가 滅하는 때에는 그 肉體로 맛보는 經驗을 다시 맛보지 못 하겠다는 것은 理論上 必然이 된다. 勿論 死後天堂에 가서도 至今에 쓰고 있는 肉體를 다시 쓰게 되면 地上에서 맛보든 經驗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것은 마치 黃色眼鏡을 끼고 世上을 볼 때에는 全部가 黃色으로 보이고 靑色眼鏡을 끼고 보면 靑色이 되는 것과 같겠다. 實로말이지 우리 至今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目이 變하여 驚目으로 된다 하면, 至今 우리가 보는 世上은 업서 지고 驚의 世上을 맛볼 것이다. 이러한 理致로써 至今우리의 肉體로써 맛보는 一般的 經驗은 그 肉體가 滅한 後에는 더 맛볼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死後에도 同一한 肉體를 所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別問題이다. 또한 至今에 가지고 있는 各 個我的 經驗이 至今의 肉體가 滅한 後에도 同一히 存在하느냐 하는 것도 別問題이다.

비록 一個我的 經驗이 肉體가 亡한 後에도 依然히 存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滅한 肉體가 復活하기 까지는 그 個我が 맞볼 수 업는 것인즉 別로 問題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